

# 물폭탄 맞은 농산물에 밥상물가 '들썩'

긴 장마에 엽채류·채소류 도매가 평년 대비 30~100% 급등  
얼갈이배추 1만4600원 103%·청양고추 8만600원 92.6% ↑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식당·영세업자들 원재료값 상승에 시름

예상보다 길어진 장마에 폭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마철 생육 부진에 수확이 이뤄지지 않아 출하량 감소로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경지 피해로 올 채소와 과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식과 외식이 줄어드는 등 가격이나 상심이 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원재료값 상승으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체와 서민들의 '밥상물가' 역시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얼갈이배추(상품·4kg) 도매가격은 1만4600원으로 평년 7187원보다 103.1%나 올랐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노지에서 생산하는 상당수 농산물은 햇볕을 보지 못해 생육이 부진하고, 폭우가 내릴 때는 토사와 함께

쏟아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긴 장마에 토지가 잠기거나 습도가 높아 잎과 줄기가 썩는 등 판매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비가 자주 내리면서 수확에 나서지 못해 생산량과 출하량이 모두 줄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장마가 이어진 탓에 얼갈이배추 외에도 청양고추(상품·10kg)는 평년 4만1833원에서 8만600원으로 92.6%나 치솟았고, 청상추(상품·4kg)는 5만2600원으로 평년(3만1400원)보다 67.5%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금치(상품·4kg)도 3만3267원에서 4만2600원(28.05% ↑) 증가하는 등 엽채류와 채소류 대다수 품목이 30~100% 상당 가격이 올랐다.

과일류 역시 마찬가지다. 사과(후지·10kg)는 평년 3만8333원에서 76.1%나 오른 6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배(신고·15kg)도 4만7000원에서 5만8500원으로 24.46% 올랐다. 여름철 즐겨 찾는 과일인 대추방울토마토(상품·1kg)는 3880원

## ■ 주요 농산물 도매가 상승 추이



에서 4550원(17.3% ↑), 복숭아(백색·4.5kg)는 2만원에서 2만3500원(17.5%)에 거래되고 있다.

광주의 한 농가는 "흐린 날씨로 햇볕을 보지 못해 생육이 부진한 상태에서 폭우로 밭이 다 망가져 올해 농사는 다 망쳤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납품도 못해 농가의 어려움이 컸는데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아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권을 강타한 폭우로 농경지 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향후 가격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농산물 가격은 밥상물가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여서 서민들의 가계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가뜰이나 고충이 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시름도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르게 되면 원재료 구입비에 지출이 늘어나는 소규모 음식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휴업하는 등 침체에 빠졌던 영세한 식당들은 매출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출비용이 많아져 자칫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 단감·전남 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가

가입면적 전남 55%·광주 19%  
가입률 배 258%·단감 121% ↑

올해 상반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작물은 전남에서는 배, 광주는 단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대상면적 대비 가입면적)은 전남 54.6%·광주 18.9%로 집계됐다.

가입건수는 전남 8만6787건, 광주 1723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9%, 68.1% 증가했다.

전남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가입률은 39.8%로 집계됐다.

전남에 이어서는 인천(52.4%), 충남(50.2%), 전북(49.6%), 경북(32.7%), 경남(31.2%), 세종(30.2%), 충북(29.9%), 강원(27%), 제주(24.5%), 경기(23.5%), 울산(21.6%)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 가입률은 인천, 세종, 울산에 이어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았으며, 전국에서는 13번째를 차지했다.

가입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작물은 전남에서는 배, 광주에서는 단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전남지역 배 재해보험 가입건수는 3315건으로, 1년 전(927건)보다

258% 증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수입보장) 가입건수도 22건에서 85건으로 286% 증가했지만, 종합상품 가입건수는 8% 가량 줄었다.

배에 이어서는 대추 가입건수가 183%나 올랐고, 대파(143%), 밤(119%), 고구마(수입보장·104%), 뽕은감(87%), 고추(6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광주지역에서는 단감 재해보험 가입건수가 19건에서 42건으로 121.1% 뛰었다. 배 가입건수 증가율이 113.5%로 뒤를 이었고, 뽕은감(111.1%), 배(60%)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배 재해보험 가입건수는 전남 20%, 광주 113.5%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전남지역에서는 배 보험 가입이 지난해(5만3062건)보다 20% 증가한 6만3467건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444건에서 500여 건 늘어난 948건으로 집계됐다.

6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은 전남 42억5900만원, 광주 1억6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전남에서는 1883억17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농가에 지급됐다. 전국 지급 보험금(8980억원)의 21%에 달하는 금액이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8억3500만원이 지급됐다.

올 상반기 기준 ha당 전국 평균 농가 부담 보험료는 15만7797원으로, 전남(13만5948원)은 평균보다 적고 광주(22만4270원)는 평균보다 6만6000원 가량 높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

21일까지 참가자 모집

농어촌공사, 활동비 등 지원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21일까지 '2020농촌재능나눔 수시단체활동지원사업' 참여 단체·개인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농어촌공사가 주관한다.

활동기간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로, 재능을 나누고자 하는 농촌마을을 지정·신청하면 된다.

공사는 소모품 재료비와 교통비 등의 활동비와 운영비 500만원 안팎을 지원한다.

모집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 개선, 주민교육 문화증진 등 4개 분야에서 55개 세부 활동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20개 단체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심사위원회가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신청 단체·개인은 오는 28일 smilebank.kr에 공지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 청정축산 환경대상 우수농장 2곳 시상



김석기(오른쪽 두번째)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이 화순 실만한농장 이상근 대표에 '청정축산 환경대상' 전남예선 우수상과 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화순 산란계농가 실만한농장·순천 한우농가 선후축산 선정

화순과 순천지역 축산농가가 하반기 '청정축산 환경대상' 전남지역 대표 출전자로 선정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3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전남예선에서 하반기 우수농가 2호를 선정,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3회째를 맞는 청정축산 환경대상은 낸

새 없고 깨끗한 축산 기반을 조성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을 육성하고 축산환경개선 선도농가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전국 각지의 우수한 축산환경개선 농가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상·하반기 2호씩 4농가가

선정됐으며, 이들은 오는 11월 전국단위 본선에 출전한다.

이번에 선정된 축산농가는 화순군 춘양면 산란계농가 실만한농장(대표 이상근), 순천시 황전면 한우농가 선후축산(대표 조보훈)이다.

이들 농가는 가족 분뇨 등으로 인한 주변 민원이 없으며 축산환경 개선의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

## 아삭·달콤 '평동 차돌 복숭아' 맛보세요



###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털이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평동 차돌 복숭아'가 출하기를 맞아 산지 직거래 행사를 열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7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 1층에서 '평동 차돌 복숭아' 특판 행사(사진)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광산구 평동 일대에서 재배되는 차돌 복숭아는 털이 없고 매끈해 바로 씻어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 복숭아보다 과육이 단단해 아삭거리는 식감이 일품이고 당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동 차돌 복숭아는 평동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형구 광주본부장과 김인한 평동농협 조합장, 최영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유정기 농협중앙회 광주검사국장, 광주시 생명농업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각·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